

2022학년도 3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대비 자기주도 학습자료 2회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6	4	7	5	8	4	9	5	10	2	11	2	12	2	13	4	14	5	15	1	16	1	17	3	18	1	19	2	20	4	21	2	22	1	23	3	24	5	25	5	26	4	27	4	28	2	29	2	30	5	31	2	32	5	33	3	34	1	35	3	36	4	37	3	38	4	39	2	40	4	41	1	42	5	43	3	44	4	45	1

해설

1. [출제의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을 이해한다.

제시된 강연에서 청중의 반응을 살펴보는 부분은 있지만, 청중의 질문에 대답을 하며 청중과 상호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① 넷째 문단에서 '500여 개에 이르는 송수신 탑', '5,000 킬로미터에 달하는 곳' 등의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첫째 문단에서 '바로 오는 말씀 드릴 세미나포럼입니다. 세미나포럼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가리키며', '손가락 세 개를 펴며' 등과 같은 내용에서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첫째 문단에서 봉화의 제약에 대해 언급한 후 둘째 문단에서 봉화의 제약에서 벗어난 세미나포럼의 특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2. [출제의도] 강연 자료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강연에서는 모스 부호를 설명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세미나포럼을 대체한 모스 부호에 대한 자료는 강연에서 제시된 시각 자료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첫째 문단의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 제약이 있었습니다.'라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둘째 문단의 '(화면을 가리키며) 이 화면은 세미나포럼에 ~ 널널지가 매달려 있습니다.'라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셋째 문단의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에 보이는 것은 각각 로마자 A와 숫자 7을 의미하는 형태입니다.'라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넷째 문단의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에서처럼 수 킬로미터 간격으로 500여 개에 이르는 송수신 탑을 세워 5,000 킬로미터에 달하는 곳까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는데요'라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출제의도] 청자의 듣기 전략을 이해한다.

<보기>의 앞부분에서 학생이 산 정상에 올랐다가 안개로 인해 시야가 제한되었던 자신의 경험을 밝히고 이를 세미나포럼의 한계점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강연 중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판단하고 있지 않다.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이해하는 듣기이므로, 비판적 듣기와는 관련이 없다. ③ 강연의 내용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거나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지 않다. ④ <보기>에 학생이 강연을 듣기 이전에 가진 의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보기>에 강연의 내용과 목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4. [출제의도] 담화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을 이해한다.

학생은 학예사의 설명에 대해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밝히거나 추가 질문을 하고 있으나,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였음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학생은 인터뷰의 서두에서 '조선 왕릉과 관련하여 장묘 전통, 공간 구성, 석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② 학생은 '조선 왕릉은 진입 공간, 제향 공간, 능침 공간으로 구분된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공간 구성의 독창성'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③ 학생은 학예사의 설명에 대해 '조선 왕릉은 공간에 따라 조망 범위를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공간의 위계를 조성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라고 말하며 자신의 이해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있다. ④ 조선 왕릉은 '자연 친화적 성격'이 돋보인다는 학예사의 설명에 대해, 학생은 '건원릉이나 광릉'에 갔을 때의 경험을 밝히고, '이곳 선릉도 자연 친화적 공간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라고 말하며 학예사의 설명에 대한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5. [출제의도] 담화 참여자 간의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한다.

[B]에서 학예사는 '석물의 예술적 가치가 높다'는 자신의 말에 대해 더 설명해 달라는 학생의 요청을 받아들여 석물의 예술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B]에서 학생은 학예사의 답변 내용 중 일부만 인용하여 설명을 요청하고 있으나, [A]의 학생 질문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② [B]에서 학생은 학예사의 설명에 대해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학예사가 답변에서 제시한 사례의 적절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은 [A]나 [B]에 나타나 있지 않다. ④ 학예사는 학생의 요청에 따라 [B]에서 석물의 예술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A]에서 자신이 설명한 내용을 [B]에서 반복하고 있지는 않다. ⑤ 학예사가 [A]의 설명에 대한 학생의 이해가 잘못되었다고 밝히는 내용은 [A]나 [B]에 나타나 있지 않으며, [B]에서 학생의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설명한다는 내용도 나타나 있지 않다.

6. [출제의도] 글에 활용된 글쓰기 계획을 파악한다.

1문단에 조선 왕릉은 '자연 친화적 장묘 전통, 인류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잘 보여 주는 왕릉 조성 및 기록 문화, 조상 숭배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살아 있는 유산'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ㄱ). 2문단에 조선 왕릉은 '지면의 높이 차이를 만들고 정자각의 배치를 활용하여 제향 공간과 능침 공간의 조망 범위를 다르게 함으로써 공간의 위계를 조성'하였다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ㄷ). 4문단에 '『국장도감의례』, 『산릉도감의례』, 『종묘에서 정례적으로 봉행되는 제례 의식』이 기록 문화와 제례 의식과 관련된 사례로 제시되어 있다(ㄷ).

[오답풀이] 2문단에 조선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왕릉을 조성하는 자연 친화적 원칙'을 지켜 왔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으나,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이 조선의 고유한 장묘 문화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은 초고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ㄴ).

7. [출제의도] 글에 나타난 글쓰기 방식을 파악한다.

[C]는 능침 공간이 왕의 공간인 상계, 신하의 공간인 중계와 하계로 영역이 나뉘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상계에 병풍석, 난간석, 혼유석, 양 석상과 호랑이 석상 등이 배치되고, 중계에 장명등, 문신 형상의 석인상, 석마 등이 배치되고, 하계에는 무신 형상의 석인상, 석마 등이 배치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각 석물에 대해서는 외적 특징이나 상징적 의미 등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오답풀이] ① [C]는 능침 공간에 배치된 석물의 외

적 특징이나 상징적 의미 등을 설명하고 있으나, 석물의 예술미에 대해 분석하거나 왕릉들을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② [C]는 능침 공간에 배치된 석물을 통해 조선의 내세관과 문치주의를 표방했던 조선 왕조의 지향이 드러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석물과 관련된 평가를 소개하고, 각 평가 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③ [C]는 능침 공간에 배치된 석물의 외적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석물의 형태 변화 양상을 설명하거나 시기별로 나누어 특징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④ [C]는 능침 공간에 배치된 석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각 석물에 대한 설명을 인용하고 그러한 설명을 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8. [출제의도] 작문 계획에 따라 내용을 이해한다.

3문단의 '파노라마식으로 펼쳐진 1층 전시실에서 작가의 삶의 흔적을 따라가며 작품을 둘러보았다.'에서 군산의 체만식 문학관을 방문하여 본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거기서 들은 내용에 대해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는 군산을 답사지로 택하게 된 이유로 국어 시간에 배운 체만식의 삶과 문학에 한 발자국 다가서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② 2문단에는 기차를 타고 익산역에 내려 버스를 타고 군산까지 가는 여정이 드러나 있다. ③ 2문단에는 바둑판 모양으로 정리된 길과 일본식 가옥의 모습 등이 묘사되어 있다. ⑤ 5문단에는 군산항에서 금강의 흔적해진 물빛을 바라보며 '탁류'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을 떠올리며 감상하는 부분이 드러나 있다.

9.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초고를 수정·보완한다.

(가)의 자료는 일제 강점기 때 전국 쌀 수탈량 중에서 군산의 쌀 수탈량이 40.2%로 가장 많음을 보여 주고 있고, (나)의 자료는 『탁류』의 배경인 군산 지역에서 미두장을 중심으로 일제 강점기의 혼란한 상황과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군산이 소설 『탁류』의 배경으로 그려질 수 있었던 개연성을 언급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0. [출제의도] 글을 읽고 바르게 고쳐 쓴다.

1층 전시실을 구경하고 2층으로 올라간다는 내용은 순차적으로 이어지므로 '그런데'가 아닌 '그리고'라는 접속 표현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기본형이 '설레다'이므로 '설레는'이 적절한 표현이다. ③ 조사 '에'는 부사격 조사이므로 관형격 조사 '의'가 적절한 표현이다. ④ '채련'은 '다시 나타나다'라는 뜻이므로 '다시'와 의미가 중복되므로 '다시'를 삭제한다. ⑤ 주어인 '질곡이'와 서술어인 '느꼈다'의 호응 관계가 부적절하므로 '느껴졌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 고쳐 쓰기 방안이다.

11. [출제의도] 훈민정음의 제작 원리를 이해한다.

훈민정음의 초성 중에서 이[齒]의 모양을 본뜬 자는 오소리 'ㅅ'이며, 여기에 '가획'의 원리에 따라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는 가획자 'ㅆ, ㅈ'이다. 중성 중에서 초출자 'ㅇ'에 기본자 'ㅇ'를 결합하여 만든 글자는 재출자 'ㅇ'이다. '상형'이나 '가획'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만든 이체자는 'ㅇ, ㄹ, ㅅ'이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글자는 '홀'이다.

12. [출제의도] 관형사와 관형어의 분류 기준을 이해한다.

품사는 단어를 의미, 형태, 기능으로 분류한 갈래를 의미한다. 현행 학교 문법에서는 단어의 품사를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로 분류한다. 문장 성분은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주성분에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고, 부속 성분에 관형어, 부사어가 있으며, 독립 성분에 독립어가 있다. <자료>의 1문단은 관형어가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 즉 문장 성분에 따라 분류된 것임을 밝히고, '체인 앞에서 그 뜻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자료>의 5문단은 관형사에 대해 '체인 앞에서 체인의 뜻을 꾸며주는 품사'라고 정의하면서, 관형사가 품사에 따른 분류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관형사의 특성으로서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다는 점과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13. [출제의도] 관형어의 다양한 특성에 대해 이해한다.

c에서 '남자의 친구'는 '성별이 남자인 이와 친구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의'를 생각하여 '남자 친구'가 되면, '성별이 남자인 친구'나 '이성 교제의 대상으로서의 남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어 의미에 변화가 생긴다.

[오답풀이] ① a~d는 체인 '친구'를 꾸며 주어 어떠한 친구가 여기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② 체인 '고향'은 관형격 조사 '의' 없이 체인 '친구'를 꾸며 주고 있으므로 관형어로 볼 수 있다. ③ '예쁜'의 기본형은 '예쁘다'로, 어간 '예쁘-'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하여 '예쁜', '예뽀' 등의 관형어를 만들 수 있다. ⑤ '옛'은 '친구'의 의미를 꾸며주면서 조사가 결합하지 않고 활용이 불가능한 단어이므로 관형사가 관형어가 된 경우로 볼 수 있다.

14. [출제의도] 높임 표현을 이해한다.

서술의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으므로 주체 높임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할머니'를 높여 '출' 대신 '드릴'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객체 높임에 해당한다. ② 목적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할머니'를 높여 '보고' 대신 '뵈고'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객체 높임에 해당한다. ③ 목적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할머니'를 높여 '데리고' 대신 '모시고'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객체 높임에 해당한다. ④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큰아버지'를 높여 '에게' 대신 '께'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객체 높임에 해당한다.

15. [출제의도] 단어의 의미 관계를 파악한다.

'벗다'는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뜻을 가진다. '누명을 벗다'에서 '벗다'는 '누명이나 치욕 따위를 씻다'라는 뜻이다. 이때 '벗다'의 반의어는 '사람이 죄나 누명 따위를 가지거나 입게 되다'라는 뜻의 '쓰다'가 될 수 있다. '배낭을 벗다'에서 '벗다'는 '메거나 진 배낭이나 가방 따위를 몸에서 내려놓다'라는 뜻이다. 이때 '벗다'의 반의어는 '어깨에 걸치거나 올려놓다'라는 뜻의 '메다'가 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안경을 벗다'에서 '벗다'는 '사람이 자기 몸 또는 몸의 일부에 착용한 물건을 몸에서 떼어 내다'라는 뜻이다. 이때 '벗다'의 반의어는 '얼굴에 어떤 물건을 걸거나 덮어쓰다'라는 뜻의 '쓰다'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까다'가 '배낭을 벗다'에서 '벗다'의 반의어라고 할 수 없다. ⑤ '허물을 벗다'에서 '벗다'는 '동물이 껍질, 허물, 털 따위를 갈다'의 뜻이다. 이때 '벗다'의 반의어는 '쓰다'가 될 수 없다.

[16~21] (인문사회복합) 안서원, 『심리학, 경제를 말한다』

심리학적 입장에서 인간의 선택 행동을 설명한 카너

민의 전망 이론을 소개하고 있는 글이다. 전통 경제학에서는 인간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전제 아래, 시장에서 재화와 용역의 생산, 분배, 소비 활동을 연구한다. 전통 경제학의 대표적인 이론인 기대 효용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대안이 여럿일 때 각 대안의 효용을 계산하여 자신에게 최대 이득을 주는 대안을 선택한다. 하지만 카너먼은 실제 인간의 행동에 나타난 다양한 양상을 연구한 결과, 이러한 전통 경제학의 전제에 반기를 들고, 이득보다 손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간의 심리가 선택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전망 이론을 제안한다. 전망 이론에 따르면 같은 크기의 이득과 손실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이득감보다 손실감을 더 크게 느낀다. 이와 같은 이득과 손실에 대한 심리 반응의 차이로 인해 '틀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따르면 사람들은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선택 상황이 자신에게 이득을 주는지, 손실을 주는지에 따라 '긍정적 틀'과 '부정적 틀'로 나눠 인식한다. 그 결과 긍정적 틀에서는 확실한 이득을 주는 대안을 선택하고, 부정적 틀에서는 불확실한 손실을 주는 대안을 선택한다. 즉, 이득의 영역에서는 확실한 이득을 추구하는 위험 회피 성향을, 손실의 영역에서는 불확실한 손실을 추구하는 위험 추구 성향을 나타낸다. 카너먼은 인간의 선택 과정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에 주목하여 행동 경제학을 개척하였다.

16. [출제의도]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5문단의 '두 축이 교차하는 지점은 현재 '나'의 상황을 의미하는 준거점'이라는 설명과 1문단의 '그는 실제 인간의 행동에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을 연구하여', 마지막 문단의 '인간의 선택 과정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에 주목하여' 등의 내용을 종합할 때, 자신의 현재 상황을 준거로 하여 나타나는 선택 행동의 다양한 양상을 분석한 이론은 기대 효용 이론이 아니라, 카너먼의 이론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2문단의 '전통 경제학의 대표적 이론인 기대 효용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대안이 여러 개일 때 각 대안의 효용을 계산하여 자신에게 최대 이득을 주는 대안을 선택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1문단의 '심리학자인 카너먼은 인간이 논리적 사고 과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직감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하였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1문단에서 심리학적 연구 성과를 경제학에 접목시킨 새로운 이론을 제안했다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1문단의 '그는 실제 인간의 행동에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을 연구하여 인간은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전통 경제학의 전제에 반기를 들고'와 마지막 문단의 '카너먼은 이러한 전제를 비판하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7. [출제의도] 사례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매체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률을 더 많이 접한다는 이슈를 들어, 교통사고의 사망률이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보다 높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는 해당 사례를 자주 접해서 발생 빈도수가 높다고 판단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신이 없음을 증명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는 자주 접하거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없다. ② 더 많은 숫자를 더하기 때문에 합이 크다는 판단은 자주 접하거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없다. ④ 숫자를 어떻게 표기했느냐에 따라 지방의 함유 정도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자주 접하거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⑤ 더 많은 뺑을 만드는 것이 힘든 일이라고 느끼는 것은 자주 접하거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없다.

18. [출제의도] 제시된 자료를 이해한다.

<그림>에 제시된 그래프를 보면, x 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y 의 값도 증가하는 증가함수이다. 그런데 이득 영역에서는 x 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그래프의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득 영역에서 성과가 동일한 크기로 증가할 때마다 성과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치의 크기가 증가하는 폭이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답풀이] ② x 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그래프의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므로 가치의 크기가 증가하는 폭이 커진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x 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그래프의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므로 가치의 크기가 증가하는 폭이 작아진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⑤ x 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y 의 값도 증가하는 증가함수이므로 가치의 크기가 감소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9. [출제의도]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7문단에 의하면, 확실성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 회피 성향을, 불확실성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 추구 성향에 해당한다. ㉠안과 ㉡안을 선택한 사람은 불확실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므로 위험 추구 성향에 해당하고, ㉢안과 ㉣안을 선택한 사람은 확실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므로 위험 회피 성향에 해당한다. 따라서 ㉢안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위험 추구 성향이므로, 이를 위험 회피 성향이라고 하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카너먼의 전망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같은 크기의 이득과 손실이 있을 때 이득감보다 손실감을 더 크게 느낀다. 이를 '상황 1'과 '상황 2'에 적용해 보면, ㉠안의 50만 원을 얻었을 때의 이득감보다 ㉡안의 50만 원을 잃었을 때의 손실감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안의 50만 원과 ㉡안의 50만 원에 대해 사람들이 부여하는 가치는 다르게 된다. ③ ㉠안과 ㉢안은 0.5의 확률로 돈을 받거나 잃는 상황이므로 불확실한 대안에 해당하고, ㉡안과 ㉣안은 1의 확률로 돈을 받거나 잃는 상황이므로 확실한 대안에 해당한다. ④ '상황 1'에서 ㉡안을 선택한 사람들은 확실한 이득을 추구하는 위험 회피 성향을 나타낸다. ⑤ '상황 2'에서 ㉢안을 선택한 사람들은 확실한 손실을 꺼리는 위험 추구 성향을 나타낸다.

20.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유를 추론한다.

전망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이득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보기>에 적용하면, 소비자들이 구매 물품을 반품할 때 느끼는 손실감이 구매 금액을 환불받았을 때의 이득감보다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실제로 제품을 반품하는 소비자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제품을 사용하는 기간만 제품을 통해 얻는 이득감이 줄어드는 것은 제품을 반품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② 제품에 대한 불만족은 심리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설명은 전망 이론의 설명과는 관련이 없다. ③ 제품을 반품했을 때의 이득감이 제품을 그대로 사용했을 때의 이득감보다 더 크다면 제품을 반품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 투입된 시간과 노력을 계산했을 때, 제품을 반품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제품을 반품하지 않는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1.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를 해석한다.

<보기>에 제시된 상황은 400명의 사람이 죽거나(프로그램㉠), 아무도 죽지 않을 확률이 3분의 1이고, 600명이 죽게 확률이 3분의 2(프로그램㉡)인 상황이다. 이는 손실을 주는 상황이므로 사람들은 이를 부정적 틀로 인식한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손실이 확실한 프로그램㉡보다 손실이 불확실한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된다.

[22 ~ 26] (사회) 정하중, 「행정법총론」

이 글은 손실 보상 청구권을 설명하고 있다. 손실 보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인 특별한 희생과 재산권의 사회적 한계 사이의 구분에 대해 경제 이론과 분리 이론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한다. 경제 이론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은 침해의 정도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다고 본다. 반면 분리 이론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은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구별된다고 본다. 사회적 한계를 넘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 작용에 대해 보상 규정이 없을 때, 경제 이론은 헌법 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보지만, 분리 이론은 제2항을 근거로, 위법한 행정 작용을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22.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3문단을 보면, 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즉, 보장되는 재산권의 내용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이 개인에게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은 법률로써 그 내용이 구체화된 것이다.

[오답풀이] ② 공용 침해 중 사용의 경우 재산권은 국가로 이전되지 않는다. ③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 작용에 대해서는 손실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④ 법률에 따른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용 침해와 손실 보상이 내용상 분리될 수 없다는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⑤ 행정 기관이 사실 연수원을 일정 기간 동원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공용 침해 중 '사용'에 해당한다.

23.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를 비교하여 이해한다.

3문단을 보면,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할 때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 4문단을 보면, ㉠은 재산권 침해 정도에 따라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이 특별한 희생으로 바뀌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재산권 침해의 정도가 특별한 희생에까지 이르지는 행정 작용의 경우, ㉠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은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헌법 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행정 작용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고 본다. ② ㉠은 헌법 제23조 제2항과 제3항은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완전히 분리된다고 본다. ④ 손실 보상 청구권 성립 요건인 특별한 희생의 발생 여부에 대해 ㉠은 재산권 침해의 정도를, ㉡은 입법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보상 없이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재산권 침해를 규정한 법률에 대해, ㉠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은 제2항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본다.

24. [출제의도] 글에 생략된 내용을 파악한다.

5문단을 보면, 분리 이론은 재산권 침해를 규정한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 입법자가 이를 사회적 제약으로 규정한 것으로 본다는 점,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더라도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면 헌법에 위반되고, 이때의 행정 작용은 위법하다고 본다는 점, 재산권 존속이 손실 보상보다 우선한다고 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에 근거해 분리 이론은 손실 보상 대신 위법한 행정 작용을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입법자가 법률로써 보상을 규정하지 않는 한, 재산권은 보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닌 그대로 보존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본다는 점이 전체에 있다.

[오답풀이] ① 분리 이론은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의 재산권 침해는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고, 침해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본다. ② 헌법에 따라 공용 침해 규정과 손실 보상 규정은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③ 분리 이론은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률은 헌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본다. ④ 분리 이론

은 행정 작용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면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본다.

25. [출제의도] 글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여 이해한다.

<보기>를 통해 헌법 제23조가 분리 이론의 입장을 취했다는 점, A 법률은 개발 제한 구역 지정에 대한 보상은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5문단을 보면, 분리 이론은 재산권 침해를 규정한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 이러한 재산권 침해를 특별한 희생이 아닌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발 제한 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의 경우, 헌법 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재산권 침해를 규정한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 이러한 재산권 침해를 특별한 희생이 아닌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는 개발 제한 구역 지정 행위가, 헌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였을 것이다. ② 개발 제한 구역 지정 행위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규정이 헌법 제23조 제3항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③ 토지 재산권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A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였다. 따라서 개발 제한 구역 지정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토지의 공공성을 근거로 판단하였을 것이다. ④ 개발 제한 구역 지정 행위가 개인에게 가혹한 부담을 발생시킨다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개발 제한 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는 개인이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26. [출제의도] 문맥상 의미를 파악한다.

경제 이론이 별개 아니라 단지 침해의 정도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이다. 그러므로 ㉠은 문맥상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로 바꾸는 게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공적 부담의 평등이란 행정 작용으로 인한 특별한 희생을 공공이 분담하기 위한 것이다. ② 공용 침해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이다. ③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은 헌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산권의 한계이다. ④ 분리 이론은 헌법 제23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재산권 침해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의 전혀 다른 의사가 규정한 것이라고 본다.

[27 ~ 30] (예술) 박홍순, 「미래주의 회화 운동」

20세기 초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미래주의 운동을 소개한 글이다. 이 글은 미래주의 회화가 운동과 속도, 특성으로 하는 산업화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토대로 민족적 자존감을 고양시킬 수 있는 새로운 예술 운동으로 등장하였음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미래주의 회화에서는 연속 사건의 촬영 기법에 영향을 받은 분할주의 기법을 통해 대상의 역동성을 지향하고자 했다. 즉, 이미지의 겹침, 역선, 상호 침투의 방법을 활용해 움직이는 대상의 속도와 운동을 효과적으로 나타내었다. 이미지의 겹침은 화면에 하나의 대상을 여러 개의 이미지로 중첩시켜서 표현하는 방식이고, 역선은 힘의 선을 나타내며 대상의 움직임의 궤적을 나타낸다. 상호 침투는 대상과 대상이 겹쳐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대상의 사실적인 형태보다는 왜곡된 형태로 표현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미래주의 회화는 비례, 통일, 조화 등의 아름다움을 추구한 전통적인 서양 회화와 달리 대상의 속도와 운동이라는 미적 가치에 주목해서 새로운 미의식을 제시했다.

27. [출제의도]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이 글은 미래주의 회화의 정의와 등장 배경, 활용 기법, 미의식 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④처럼 미래주의 회화가 어떤 과정으로 발전해 왔는지에 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 발라, 보치오니, 상텔리아,

루솔로 등이 미래주의에 참여했음을 제시하고 있다. ② 1문단에서 미래주의는 산업화에 뒤처진 이탈리아의 현실에서 산업화에 대한 열망과 민족적 자존감을 고양시키기 위해 등장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2, 3문단에서 미래주의 화가들은 분할주의 기법을 활용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4문단에서 미래주의 회화는 움직이는 대상의 속도와 운동이라는 미적 가치에 주목해서 새로운 미의식을 제시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28.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를 추론한다.

4문단을 통해 움직이는 대상의 속도와 운동에 미적 가치를 부여한 미래주의 회화는 이후 입체적 조형물의 운동을 보여주는 키네틱 아트가 등장하는 데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영감'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존의 방식과 달리 미적 가치를 3차원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대상을 통해 구현하려는 생각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움직이는 대상이 주는 아름다움을 최초로 작품화한 것이 키네틱 아트라고 보기 어렵다. ③ 사진 촬영 기법에 회화에 접목시킨 것은 키네틱 아트와 관련이 없다. ④ 미래주의는 산업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산업 사회의 역동적인 모습에서 벗어나려 했다는 것은 영감의 내용이 될 수 없다. ⑤ 키네틱 아트가 예술적 대상의 범위를 추상적인 대상으로 확대하려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

29.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한다.

<보기>는 미래주의 화가 카르모 발라의 「강아지의 다이내미즘」이라는 작품으로, 여인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대상의 모습이 분할주의 기법 중 하나인 역선으로 구현되고 있는데, 역선은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대상을 사실적인 형태로 나타낸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강아지를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으로 그렸다는 점에서 속도감을 중시하는 미래주의 경향을 엿볼 수 있다. ③ 강아지의 움직이는 발과 바닥의 경계가 모호하게 보인다는 점에서 상호 침투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이미지의 겹침을 통해 강아지의 확을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중첩시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간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⑤ 강아지를 끌고 가는 사람의 다리를 여러 개로 그린 것에서 이미지의 겹침을 활용한 분할주의 기법을 확인할 수 있다.

30. [출제의도]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이해한다.

'주목'의 사전적 의미는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핌'이다. '자신의 의견이나 주의를 굳게 내세움'은 '주장'의 사전적 의미에 해당한다.

[31 ~ 33] (현대소설) 김원일, 「연(簾)」

이 작품은 1979년 『작단 2집』에 발표된 김원일의 단편 소설로, 역마살이 낀 아버지의 삶을 보여 주고 있다. '나'의 아버지는 타고난 역마살로 인해 가족들이 있는 집에 정착하지 못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 가끔씩 집으로 돌아오곤 한다. 이러한 아버지의 방랑벽 기질은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할아버지는 방랑정수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어느 겨울 눈발에서 객사한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지 않자 아들인 '나'에게도 이따금씩 연을 만들어 준다. 아버지는 그렇게 떠돌아다니다가 파부가 된 어머니와 만나 결혼하여 '나'를 비롯한 삼남매를 낳는다. 가정을 이룬 뒤에도 아버지의 방랑은 계속되고 결국 가족들은 전라도 진도에서 객사했다는 전보를 받는다. 이 소설에서 제목이자 주요 소재인 '연'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나'를 이어주는 하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아버지의 삶을 비유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1.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이해한다.

이 작품은 '나'가 소설의 중심인물인 아버지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와 관련된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가 아버지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장면마다 다른 서술자를 제시하여 사건을 다각도로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는 액자식 소설의 구성 형식으로, 뚜렷하게 외화와 내화로 나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제시된 부분은 액자식 구조가 아니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이 작품은 1인칭 서술자 시점으로 서술된다는 점에서 작품 밖의 서술자가 서술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⑤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동시에 일어나는 두 개의 사건을 병렬적으로 배치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2. [출제의도] 대화의 의도 및 의미를 이해한다.

'을내서 목고 왔다 잡디더.'라는 대화 내용을 근거로 '나는 아버지의 끼니를 염려하는 마음에 어머니를 빨리 모셔가려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생계를 돌보지 않고 그저 새를 좋아하는 아버지가 저수지 근처로 이사 가자는 제안에 대한 어머니의 푸념이 담긴 말이다. ② 겨울도 아닌 때에 많은 연을 만드는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 못하는 '나'의 심리가 담겨 있는 말이다. ③ 아버지가 '나'에게 '돈 벌라고 밤낮으로 일만 하는 사람들을 보모 사람 사는 목적이 저런가 싶을 때가 있지리'라고 말을 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자식들이 양식이 떨어져 혹시 저녁밥을 굶지 않았을까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33.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보기>는 이 작품의 주요 소재인 '연'과 관련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것으로, 역사살을 타고나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는 아버지의 기질과 삶의 방식을 '연'이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과 연관 지어 설명하고 있다. 연줄에 의해 열레에 매여 있는 '연'은 한없이 날아다니지 못하고 결국 지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연'을 지상에 묶어두는 역할을 하는 열레를 가족이라고 볼 수 있다. ㉠에 이어지는 '돈 벌라고 밤낮으로 일만 하는 사람들 보모 사람 사는 목적이 저런가 싶을 때가 있지리.'라는 말을 통해 아버지는 삶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그가 역사살로 인해 무능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① '장터를 떠돌며 어물 장사들' 하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가족의 생계를 떠안고 살아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② '목적이 없어도 어떤 때는 연뎨크로 그냥 멀리로 떠나 땡기는 꿈에 대해 아버지가 언급한 부분에서 아버지가 바람 부는 대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연'의 모습과 닮았다고 볼 수 있다. ④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연이 연줄로 열레에 매여 결국 지상으로 돌아온다는 <보기>의 설명을 근거로 했을 때, 아버지에게 가족들은 연을 지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열레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어머니가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감정은 원망과 애정을 함께 안고 있는 것이 '나'의 인식인데, 이는 마지막 부분에서 순환의 법칙에 따른 밀물과 썰물로 비유되어 나타나고 있다.

[34~38] [교연시가 수필 복합] (가) 윤선도, 「오우가」/(나) 박완서, 「꽃 출석부 1」

(가) 윤선도, 「오우가」
화자가 자신의 벗이라 여기는 다섯 자연물의 덕성을

예찬하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을 자신의 벗이라 여기고 있는데, 각각의 자연물을 <제2수>에서 <제6수>까지 순차적으로 배치하여 자연물의 모습을 통해 덕성을 이끌어내고 예찬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나) 박완서, 「꽃 출석부 1」

글쓴이는 자신의 마당에 핀 복수초가 눈을 녹이고 피어나 해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복수초의 강한 생명력에 경탄하고 있다. 또한 글쓴이는 자신의 마당에 피어나는 수많은 꽃들이 계절의 질서에 맞춰 차례대로 피는 모습을 보면서 꽃들에 대한 기다림과 애정을 담아 꽃 출석부를 부른다'고 말하고 있다.

34. [출제의도] 두 작품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의 <제2수>에서 '검기', 제3수에서 '푸르는 듯', 제5수에서 '푸르니' 등을 통해, (나)의 '혹갈색 잔뿌리', '검은 흙', '갓노란 꽃', '진한 황금색', '더욱 갓노랑게' 등을 통해 색채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② (가)에서는 <제4수>의 '~눈서리를 모르느냐', <제5수>의 '~어이 비었느냐', <제6수>의 '~너만한 이 또 있느냐' 등에서 설의적 표현이 나타나지만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나)에서는 설의적 표현으로 볼 만한 구절을 확인할 수 없다. ③ (나)에서는 '축 치킨'에서의 '축'이 음성 상징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가)에서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다. ④ (가)는 '술아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느냐' 등에서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애정을 표출하고 있으나, (나)에서는 자연물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확인할 수 없다. ⑤ (가)와 (나) 모두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3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화자는 높이 떠서 만물을 비추는 달의 모습을 보면서 광명의 존재로서 달을 인식한다. 그리고 말을 하지 않는 과묵함을 달의 속성으로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높이 떠 있는 것이 과묵함이라는 속성을 인식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제4수>의 '술아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느냐'는 눈서리 속에서도 술의意在 지지 않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눈서리는 시련을 의미하므로 이는 시련에 굴하지 않는 굳건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② <제5수>에서는 사계절 푸른 모습을 잃지 않는 대나무의 모습을 예찬하고 있다. 여기서 푸른 모습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본모습을 지켜 나가는 깨끗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④ (나)에서 글쓴이는 복수초의 약해 보이는 겉모습을 보면서 '그게 과연 눈 속에서 핀다는 그 복수초인지 잘 믿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하찮은 잡초처럼 보이는 겉모습으로 인해 복수초의 강인함이라는 속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두터운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복수초의 모습에 영감을 이겨 내는 생명력이라는 속성을 부여할 수 있다.

36. [출제의도] 시상의 전개 과정을 이해한다.

B, C, D에는 A에서 제시된 다섯 사물의 덕성을 예찬하는 내용이 차례대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화자의 시선은 B, C, D 모두 중심 소재인 다섯 사물을 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D에서 화자는 광명과 과묵함의 존재인 달이 내 벗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화자의 시선이 내면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A의 <제1수>에서는 다섯 벗을 '수석', '송죽', '달'로 묶어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수석은 무생물, 송죽은 생물, 달은 천상의 자연물이므로 적절하다. ② B의 <제2수>와 <제3수>에서는 중앙에 제시된 물과 바위의 덕성을 부각하고자 이와 대조

적인 속성을 지닌 존재인 구름, 바람, 꽃, 풀을 각 수의 초, 중장에 배치하고 있다. 따라서 B에서는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여 중심 소재를 예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B의 <제2수>와 <제3수>에서는 초장과 중장이 서로 대구를 이루고 있고, C의 <제4수>의 초장, <제5수>의 초장, 중장에서도 대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B에서 대구로 인해 형성된 운율감은 C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⑤ <제1수>에서 언급된 다섯 자연물은 이후 <제2수>에서 <제6수>까지 각각의 수에서 순차적으로 배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7. [출제의도] 대상에 대한 심리적 태도를 파악한다.

(가)의 <제3수>에서 화자는 중장에 제시된 자연물 '바위'의 덕성을 예찬하고자, ㉠에서 이와 대조적인 성격을 가진 자연물 '꽃'의 속성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꽃은 피었다가 쉽게 지는 가변적 존재로 그려져, 변치 않는 모습을 가진 바위와 대조적인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화자는 바위와 대조적인 존재인 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화자는 바위를 벗어나서 인식하면서 꽃에 대해서는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반대로 (나)의 ㉡에서 글쓴이는 계절 면저 눈 쌓인 땅을 녹이고 더욱 갓노랑고 상상하게 해를 보고 있는 복수초를 보면서 '고 작은 풀꽃'이라고 말하며 기특해 하고 있다. 따라서 복수초는 글쓴이가 친근감을 느끼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에는 '꽃'에 대한 화자의 동질감이, ㉡에는 '꽃'에 대한 글쓴이의 이질감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에는 '꽃'에 대한 화자의 안도감이, ㉡에는 '꽃'에 대한 글쓴이의 불안감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에는 '꽃'에 대한 글쓴이의 애상감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에는 '꽃'에 대한 화자의 자괴감이 나타나 있지 않다.

38. [출제의도] 제목에 담긴 의미를 이해한다.

글쓴이는 마당에서 차례대로 피는 꽃들의 번호를 매기며 이를 '출석부'라 말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글쓴이는 자연의 질서에 따라 계절에 맞춰 피어나는 꽃들에 대한 애정과 기다림, 기대감을 '출석부'라는 말에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출석부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꽃이 피는 마당이 있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의 마음이 나타나 있지만, 더 많은 종류의 꽃들을 심고 싶은 마음은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② 글쓴이는 복수초를 비롯하여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꽃들에 대해서도 애정을 보이고 있으므로 화려한 꽃의 가치를 우선 시했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③ 기다리지 않아도 자연의 질서에 따라 꽃들은 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조급함이 나타났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마당에 피어난 꽃들을 주위 사람들과 함께 즐기기를 바라는 마음은 나타나 있지만, 이는 출석부의 의미와는 관련이 없다.

[39~41] (현대시) (가) 김광균, 「성호부근」/(나) 이성선, 「논두렁에 서서」

(가) 김광균, 「성호부근」
이 글은 겨울 호수 부근의 풍경을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형상화한 시이다. 이 시는 얼음이 빛나는 겨울 호수 부근을 한 사람이 홀로 걷고 있는 장면, 강물이 '얼어붙고' 노을이 지는 장면, '투명한' 하늘 밑 '눈독'같이 솟아져 '한마리'가 서 있는 장면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여 예상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나) 이성선, 「논두렁에 서서」
이 글은 '논고랑에 고인 물'을 보며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존재들의 관계와 의미를 돌아보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시이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물 속에 비친 '거꾸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아프지 않다'고

인식하고, 물에 비친 '늘 떨어 우왕좌왕하던' 자신의 모습을 '무심하고 아주 선명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39. [출제의도] 두 작품의 특징을 파악한다.

(가)에서는 '스며든다', '서 있다'와 같이 현재 시제를 활용하여 겨울 호수의 쓸쓸한 풍경과 같은 시적 상황에 주목하게 한다. (나)에서는 '본다', '행복해진다', '함께 있다', '아름답다', '선명하다' 등과 같이 현재 시제를 활용하여 물에 보고 있는 화자의 모습과 화자가 인식한 변화 등과 같은 시적 상황에 주목하게 한다.

[오답풀이] ① (가), (나)에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③ (가), (나)는 청자와 대화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나)에는 '고인 물'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지만,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고 있지 않다. ⑤ (가)에서는 시어 '노을'이 반복되지만 이를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40. [출제의도] 이미지를 중심으로 작품을 이해한다.

'㉔'에서는 노을을 '희미한 날개를 펴고 있는' '향수'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같은 애상적 정서가 환기된다. 한편 '㉓'에서 '송아지'는 '서글본 얼굴'을 하고 있어 애상적 정서를 환기한다. 하지만 '송아지'를 '희미한 날개를 펴고 있는' 것과 연결 지어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 시에서는 애상적 정서가 극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암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① '양철 같은 달'이 비치는 호수를 '한포기 화려한 꽃밭'에, '웃소매에 스며드는' '얼음소리'를 '날카로운 호적'에 비유하면서, 날카롭고 차가운 감각을 드러내 겨울 호수의 이미지를 형상화한다. ② 달이 뜬 밤 호숫가를 '홀로' 거닐고 있는 모습에서 쓸쓸한 정서가 드러난다. ③ '얼어붙은' 강물의 모습과 노을이 지는 모습을 각각 '남은 고향의 허리띠', '희미한 날개를 펴는 향수'에 비유하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시킨다. ⑤ 시의 각 장면에 제시된 '조각난 빙설', '얼어붙은' '강물', '양상한 잠목람'은 스산한 분위기를 환기하면서 애상적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41. [출제의도] 내적 준거에 의해 작품을 감상한다.

화자는 자신의 모습이 물에 비치는 모습을 '거꾸로 서 있다'고 말하면서 이를 '아프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이때 산이 자신의 '결에 거꾸로 누워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여기서 '산'은 화자와 함께 '고인 물'에 비치는 존재이고, 산이 물에 거꾸로 비치는 모습이 '늘 떨어 우왕좌왕하던' 과거 화자 자신의 모습을 동일시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② '그들'이 물에 비치는 모습을 '눈지도 낮지도 않'으며 아름다운 모습이라 표현한 것에서 물에 비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면모가 드러난다. ③ 물에 자신이 비치는 모습을 '거꾸로 서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며 이를 '아프지 않은 것'으로 표현한 것에서 물에 비치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④ 물에 비치는 '나뭇가지', '햇살', '새 그림자'와 '나의 얼굴'이 '함께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와' 다른 존재들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⑤ 물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무심하고 아주 선명하다'라고 표현한 것에서 자신의 모습을 예전과는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45] (교전소설) 작자 미상, 『배비장전』

조선 후기 작자 미상의 판소리계 소설로 판소리 창자의 말투와 리듬감 있는 문체적 특징이 잘 드러나 있는 교전소설이다. 이 작품은 배비장이 기생 애랑에게 반해 망신을 당하는 이야기를 통해 남성 채절형 모티프를 잘 보여 준다. 또한 이를 통해 서민 계층에 의한 지배 계층의 허위에 대한 풍자를 잘 드러내고 있다.

42. [출제의도] 소설의 서사적 특징을 이해한다.

배비장은 애랑의 집을 찾아가 어렵게 애랑을 만나는 상황에서 자신을 '배 걸덕쇠'라고 말한다. 이는 애랑이 배비장을 지칭해 도적이라고 말한 데 대해 자신을 낮추어 재미있게 표현한 것으로 격식을 차리는 모습이나 신분 질서가 붕괴되는 모습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풀이] ① '가만가만/자취 없이/들어가서/이리 기웃/저리 기웃'은 글자 수가 4자씩 규칙적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율문체의 문체적 특징을 나타낸다. ② '거동 보소'는 판소리 창자가 공연할 때 청중들에게 하는 상투적인 말투라는 점에서 이 작품이 판소리계 소설임을 나타낸다. ③ 배비장이 방자에 의해 서민들이 쓰는 노평거지를 쓰게 되었다는 점에서 서민 계층에 조롱당하는 지배 계층의 모습을 나타낸다. ④ 애랑을 만나기 위해 담 구멍으로 가다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한문을 쓰는 배비장의 모습은 지배 계층의 허세에 대한 풍자의 모습을 잘 나타낸다.

43. [출제의도] 소설의 제담 구조를 이해한다.

방자는 배비장에게 좋은 옷을 버리고 서민들이 입는 옷을 입도록 한다. 배비장은 체면을 생각해 주저하는데, 이에 방자는 그만 두라고 핑기며 배비장을 부추기고 있다. 이 부분에서 방자가 배비장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제시하며 설득하는 모습은 살펴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㉔에서 방자는 배비장에게 서민들이 입는 옷을 입도록 함으로써 배비장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있다. ② ㉔에서 배비장은 방자가 권유한 옷을 입는 것에 대해 초라하지 않겠느냐며 자신의 체면을 생각해 주저하고 있다. ④ ㉔에서 배비장은 애랑을 만날 욕심에 방자의 요청을 할 수 없이 수용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⑤ ㉔~㉕은 주로 방자가 배비장에게 자신의 요구를 요청하면서 대화를 주도하는 양상으로 제담의 구조가 반복됨을 나타낸다.

44.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를 이해한다.

㉔은 배비장이 어렵게 담 구멍을 지난 뒤 아프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 상황을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여 하는 말이다. 따라서 ㉔이 배비장이 방자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하기 어렵다.

[오답풀이] ① ㉔은 배비장이 애랑을 만나 군대 예절을 보여 주겠다는 것으로 애랑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의도를 드러낸다. ② ㉔은 애랑의 환심을 사기 위한 행동을 연습하다가 방자가 갑자기 들이치자 당황해하는 모습이다. ③ ㉔은 방자를 업고라도 가겠다는 말로 애랑을 빨리 만나고 싶어 하는 배비장의 마음을 나타낸다. ⑤ ㉔은 삼경에 만나기로 한 배비장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놀라는 체하는 애랑의 모습을 나타낸다.

45. [출제의도] 상황에 맞는 한자성어를 이해한다.

㉔은 배비장이 담 구멍을 지나다가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을 나타낸다. 이러한 배비장의 상황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나타내는 '진퇴양난(進退兩難)'이라는 말로 나타낼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중과부적(衆寡不敵)'은 '적은 수효로 많은 수효를 대적하지 못함'을 뜻하는 말이다. ③ '역지사지(易地思之)'는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봄'을 뜻하는 말이다. ④ '난형난제(難兄難弟)'는 '두 사람의 낮고 못함을 분간하기 어려움'을 비유하는 말이다. ⑤ '고장난명(孤掌難鳴)'은 '혼자서는 일을 이루기가 어려움'을 뜻하는 말이다.